

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

브릿지경제

농어촌公 세종대전금산지사, 금성면 교류센터 착공

“흥과 활력이 너울대는 행복거점지, 교류의 물결 금성면”

윤소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2-03-18 14:46



금산군 금성면에 건립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교류센터 조감도.(사진제공=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세종·대전·금산지사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산군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이 승인 됨에 따라 3월 본격 착공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.

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공공거점기능을 보완하고 교육·문화·복지 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,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.

본 사업은 총사업비 3990만 원을 투입해 면소재지 일원에 교류센터 조성, 다목적 주차공간, 파초 마을안길 조성,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말 준공 할 계획이다.

특히 금성 교류센터 조성을 통해 문화·복지 프로그램, 마을 공동체 행사 추진, 교류 편의공간 마련으로 주민복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전망이다.

김선영 지사장은 “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차년도부터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행복

버스, 행복택시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 배후마을 주민들이 금성면 교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세종=윤소 기자 yso6649@viva100.com
